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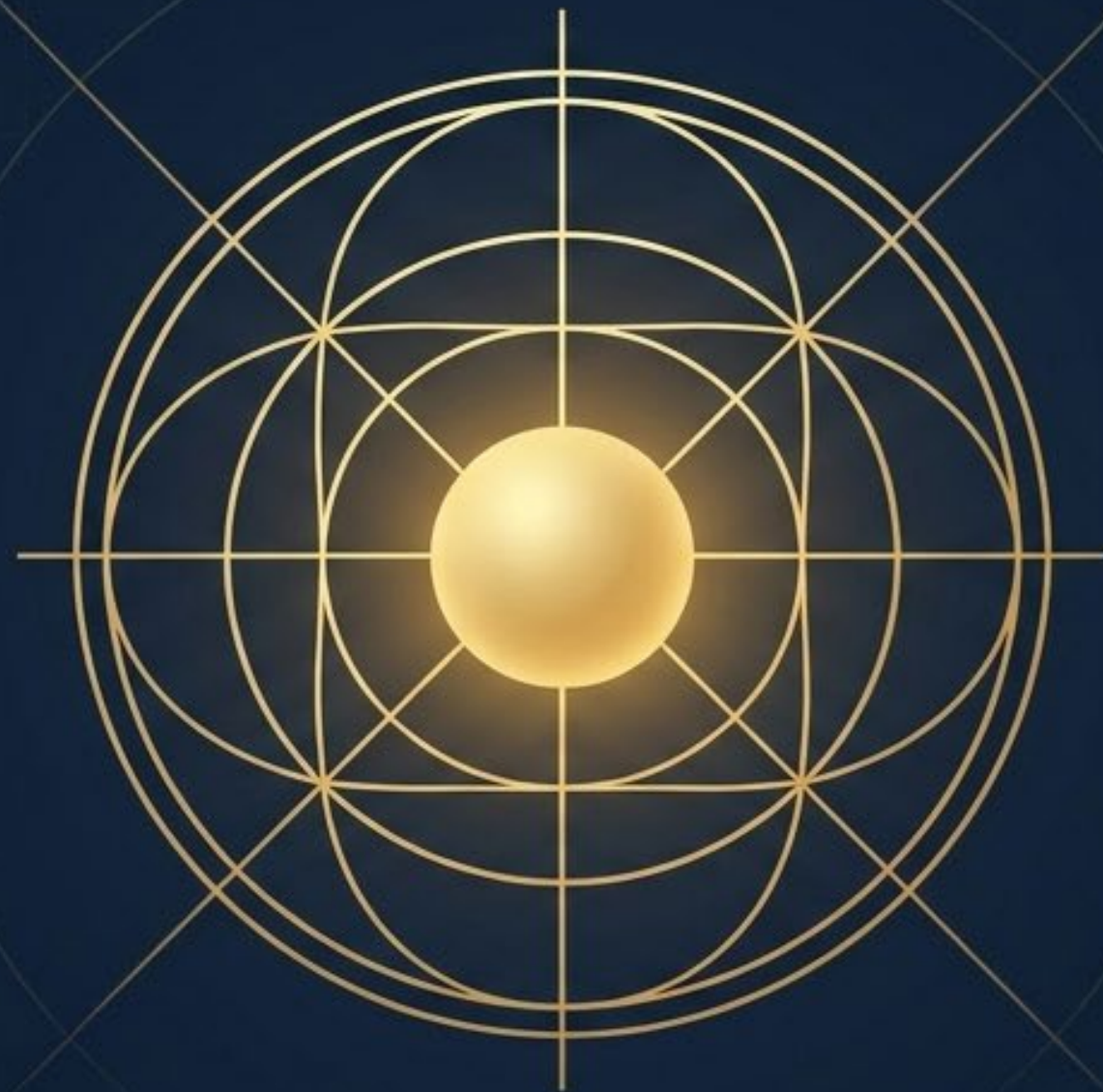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

진리 안에서 환대와 분별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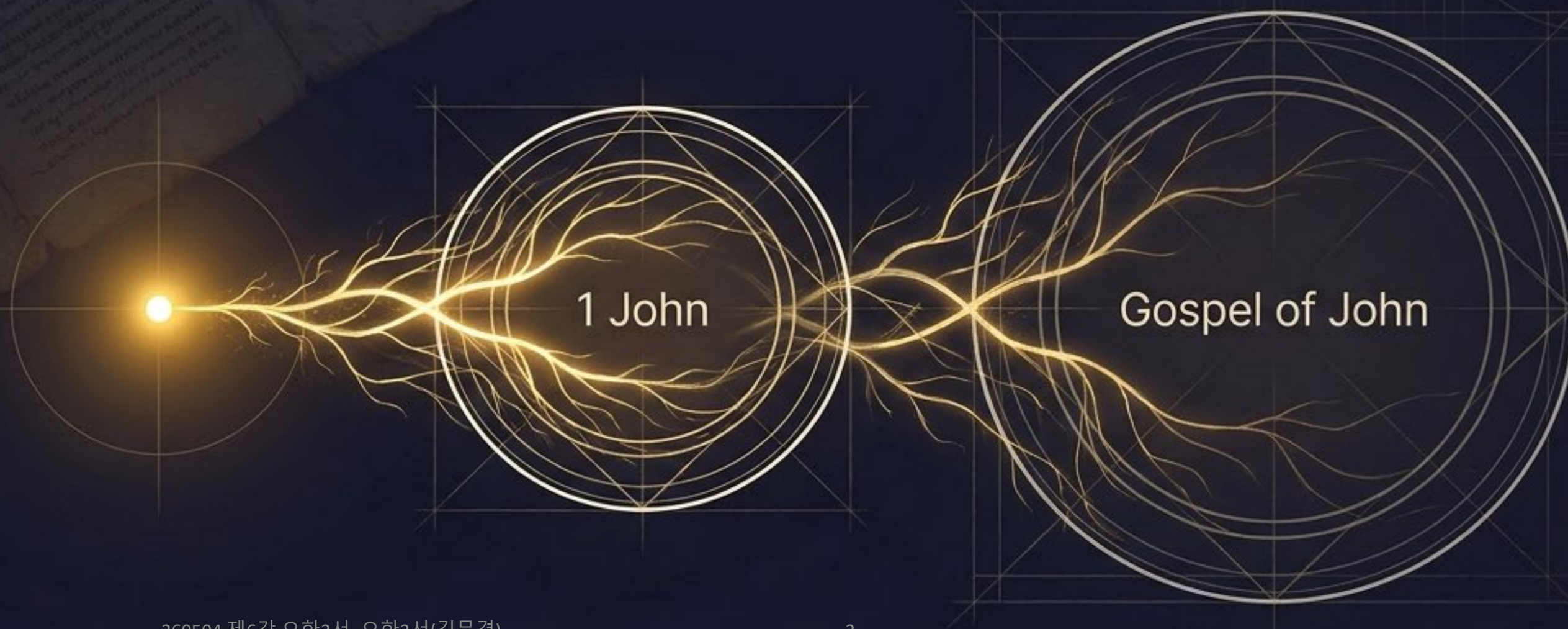
4/5/2026

요한2서: 진리와 사랑, 그리고 경계선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헬라어 원어 분석과 최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가장 짧은 서신, 가장 근원적인 신학의 씨앗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3

요한 문헌 중 가장 짧은 길이(단 13절)를 지녔으나,
요한 신학의 초기 형태가 압축적으로 담긴 핵심 문서입니다.

진리(Truth), 사랑(Love), 그리고 전통(Tradition)의
삼각 편대가 최초로 구축된 신학적 토대.

고대 헬레니즘 개인 서신의 완벽한 해부학

Scroll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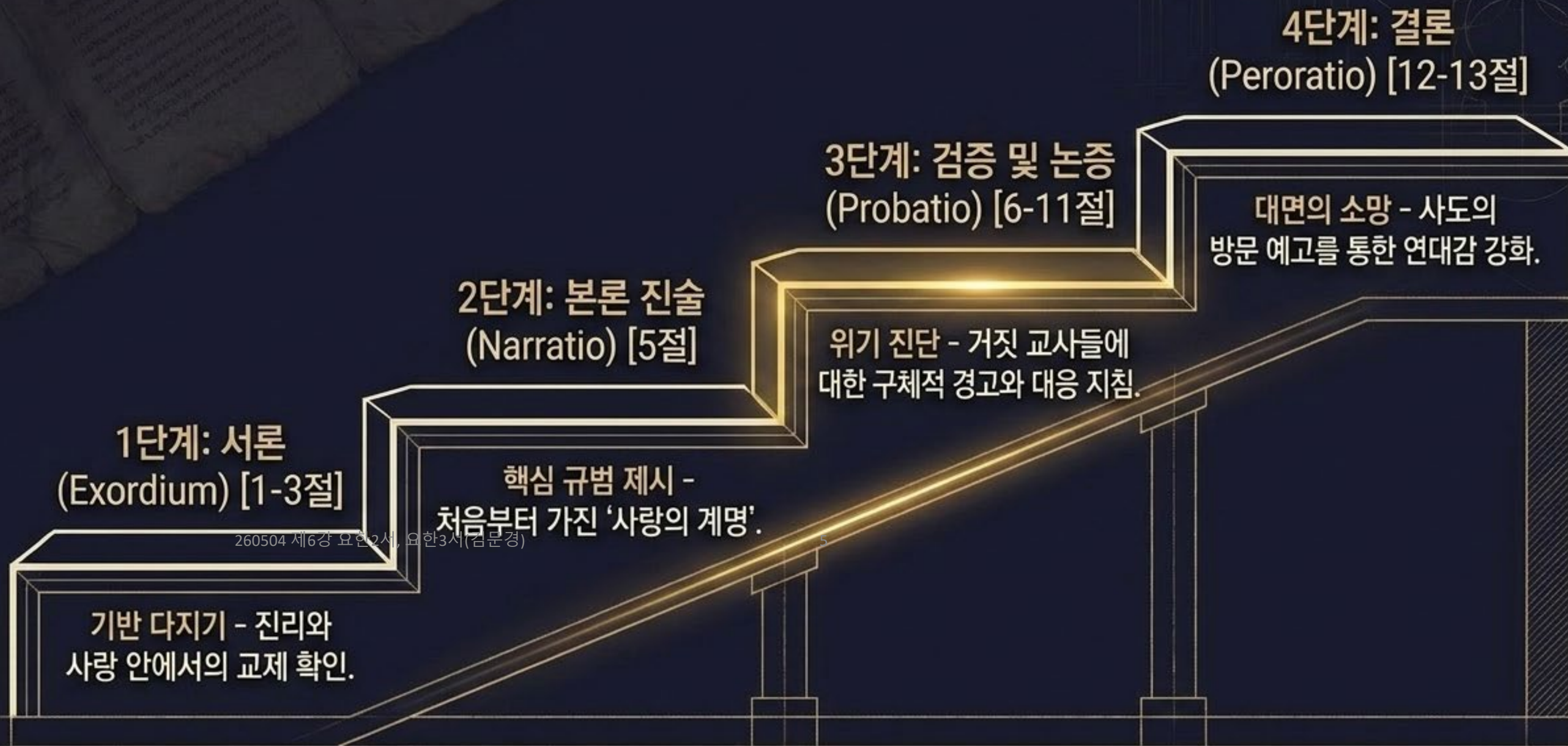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⁴
ἐρωτῶ σε

5절의 ἐρωτῶ σε (에로토 세,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는 이 문서가 허구가 아닌, 교회의 실제적 문제에 개입하는 ‘청원의 편지’임을 입증합니다.

장로의 수사학적 논증 구조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5

요한2서의 심장, 제1기둥: 진리

압도적 빈도

처음 네 절에서만
무려 5회 집중 등장.

ἀλήθεια
(알레테이아)

살아있는 실재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현재 활동하는
하나님의 실재성.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6

성경의 증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요이 1:2)

끊어질 수 없는 결합: 진리와 사랑



요한 신학에서 **신앙(진리)**과 **윤리(사랑)**은 완벽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사랑 안에 거합니다.
(4b-6절)

누구든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다.**

위기의 도래: 성육신의 부인

순회 설교자들로 위장한
거짓 교사들의 등장.

치명적 오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인격, 즉 '육신이
되심'을 정면으로 부인함
(가헌설적 이단).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
ἐρχόμενον ἐν σαρκί
(이에순 크리스톤
에르코메논 엔 사르키)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8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라 (요이 1:7a)

마지막 때의 두 가지 그림자



미혹하는 자
πλάνος
(플라노스)

공동체 내부로 침투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교인들을 길 잃게 만드는 자.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적그리스도
ἀντίχριστος
(안티크리스토스)

장로에게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를 위협하는
'반대하는 자'의 현실적 모습.

요한1서(2:18, 4:3)의 종말론적 위기감이
요한2서 공동체에 이미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짓 가르침의 본질: 지나치게 나아감

전통: 그리스도의 가르침
(Tradition)



위반 행위: προάγειν (프로아게인)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입증된 전통(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 선을 넘는 행위.
새로운 가르침(이단)은 진보가 아니라 이탈입니다.
지나치게 나아감으로써 그들은 진리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도 폐기해 버립니다.

치명적 결과

지나치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요이 1:9)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잃고
공동체 밖에 서게 됩니다.

단호한 경계선: 타협 없는 보호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이 1:10)

이유

그들을 한대하는 것은 곧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전통(전해진 신앙의 토대)을
파괴하는 거짓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경계를 세웁니다.

현대적 의미

배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영적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치명적 조치.

최근 연구 동향 1: 요한2서의 기원과 위치

[초기 기록설 - 근원적 문서]

- 요한 학파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자 요한 신학의 초보적 형태.
- 주요 학자: 슈트레커(Strecker), 슈넬레(Schnelle), 튀엔(Thyen), 헥겔(Hengel) 등.

[후기 파생설 - 파생 문서]

- 요한복음과 요한1서의 신학에서 후기에 파생 및 요약된 문서.
- 주요 학자: 벙스트(Wengst), 브라운(Brown), 슈낙켄부르크(Schnackenburg) 등.

학계의 최근 경향: 요한2서를 단순한 요약본이 아닌,
요한 신학의 '시작점(Seed)'으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동향 2: 대적자는 누구인가?

1. 영지주의자 (Gnostics)

대표 학자: 벙스트 (K. Wengst)

2. 가현설주의자 (Docetists)

요한1서(4:2)와의 일치성을 바탕으로
가장 널리 지지받는 견해.

대표 학자: 슈넬레 (U. Schnelle),
헝겔 (M. Hengel)

3. 유대인 (Jews)

대표 학자: 튀엔 (H. Thyen)

4. 천년주의자 (Millenarians)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해석.
(요한1서의 대적자와 분리)

대표 학자: 슈트레커 (G. Strecker)

결론적 종합: 요한 신학의 못자리 (Seedbed)



이원론의 기점

요한복음 특유의 '이원론(Dualism)'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초보적 형태.

삼각 편대의 완성

전통(가르침) + 진리 + 사랑이 결합된 요한 신학의 기본적 요소가 여기서 시작됨.

공교회적 사상의 기틀

바울 서신(고전 15장, 갈 1장)과 같이, 그릇된 교훈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기 교회의 핵심 방어 기제로 작용함.

진리 안에 머물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ἀλήθεια (진리) 안에
굳건히 머물고,

바물척에 마음을 투하여
-돈에 굳건한 안이 머물고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에
온전히 행하며

προάγειν (지나치게 나아감)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십시오.

공동체를 지켜내가 심시.

요한3서: 가장 짧은 편지에 담긴 초대 교회의 거대한 갈등

인물, 신학, 그리고 교회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역사적 분석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16

사건의 배경: 문서 기본 정보



발신자

- '장로' (요한2서와 동일 인물).
- 요한 학파의 지도자이자 아시아 지역 순회 선교의 권위자.



시기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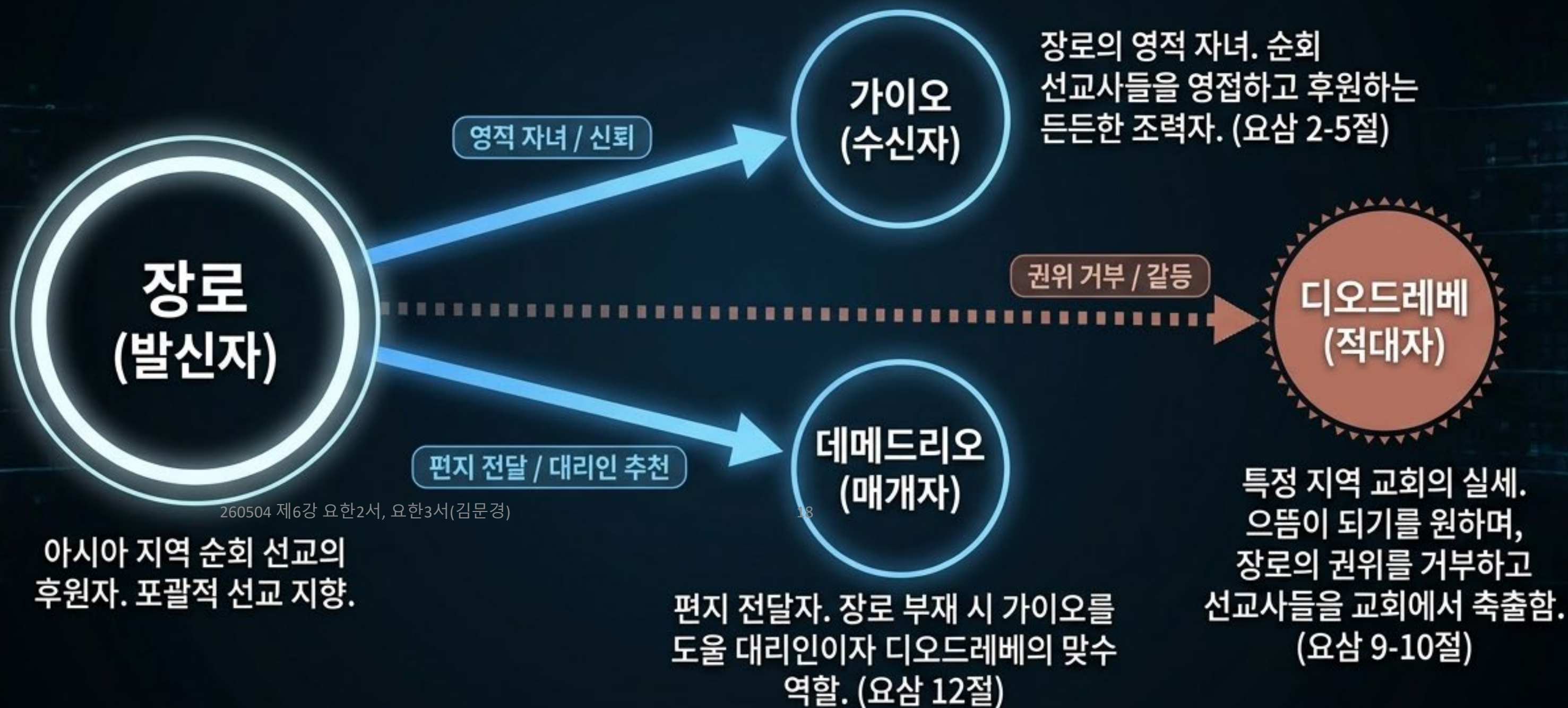
- 기원후 90년대 초반 추정.
- 요한2서 직후 작성되었으며, 발신지는 에베소로 유력.



문학적 특징

- 고대 개인 서신의 전형적 형식.
- 외부 전승이나 자료의 차용 없이 저자가 독자적으로 작성 (문학적 통일성 확고).

핵심 인물 네트워크: 권력과 연대의 역학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18

서신의 해부학: 고대 수사학적 구조

Phase 1: 편지의 시작 (1-4절)

수사학: 서두
(Exordium)

내용: 인사 및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함에
대한 감사.

Phase 2: 편지의 본론 (5-12절)

수사학: 이야기 도입 (Narratio)
& 논증 (Prob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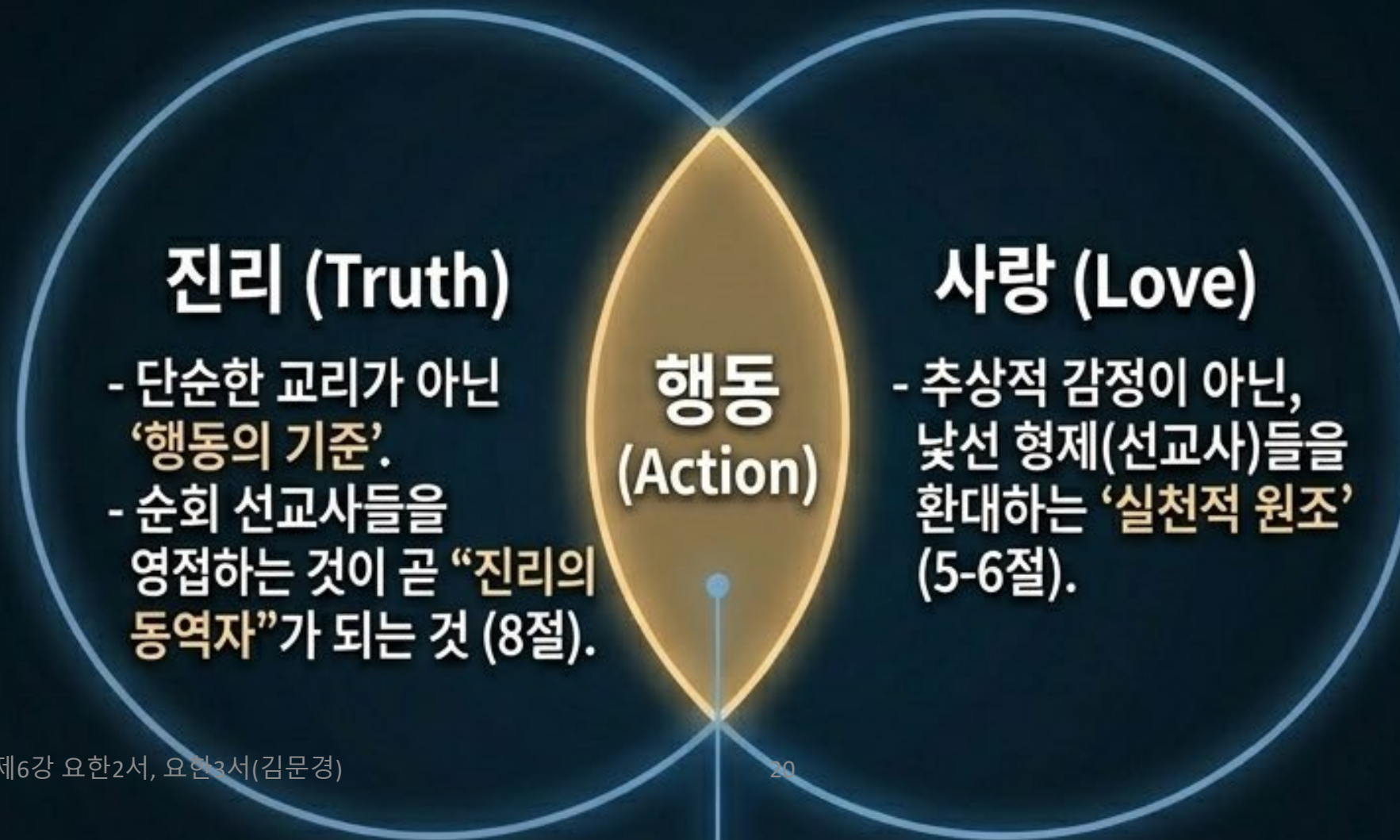
- 5-8절: 가이오의 선교사
지속적 후원 칭찬.
- 9-10절: 디오드레베의 권위
거부와 적대 행위 고발.
- 11-12절: 선한 것을 따르라는
권면과 데메드리오 추천.

Phase 3: 편지의 결론 (13-15절)

수사학: 결말
(Peroratio)

내용: 사도의 방문
예고(13-14절), 마지막
권고 및 안부 인사(15절).

신학적 기반: 행동으로 증명되는 진리와 사랑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20

장로의 관점에서 디오드레베의 적대 행위는 단순한 의견 불일치가 아님.
선교사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지 못한 악한 행위”로 규정됨 (11절).

갈등의 본질: 선교와 교회론의 충돌

장로의 비전 (보편적/네트워크 교회론)

- 광범위한 이방인 선교 지향.
- 순회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교회들이 상호 원조하고 연대해야 함.
-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자는 진리의 동역자이다."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디오드레베의 비전 (지역적/배타적 교회론)

- 외부 선교사 개입 거부 및 자립 추구.
- 개별 공동체의 내부 결속을 우선시하며, 외부 연대보다는 고립을 통한 통제력 강화.



21

이 갈등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 충돌이었다.

역사적 해석 매트릭스: 학자별 진단 모델

학자 (Scholar)	갈등의 본질 (Core Focus)	디오드레베의 정체 (Identity of Diotrephes)	장로의 정체 (Identity of the Elder)
하르낙 (A. v. Harnack)	교회법 및 구조	독립을 추구하는 '최초의 군주적 주교'	아시아 전체 선교 조직의 총괄자 (가부장적 권위)
바우어 (W. Bauer)	교리 및 신학	이단 (Heresy) 세력의 우두머리	정통 신앙 (Orthodoxy)의 대변자
케제만 (E. Käsemann)	권위 및 이단 논쟁	교회 징계권을 행사하는 '정통 신앙의 군주적 주교'	교회에서 출교당한 '영지주의적 이단'

4/5/2026

260504 제6강 요한2서, 요한3서(김문경)

22

과도기의 진통: 제도적 교회로의 전환

초기 요한 공동체 (전통적)

- 성령 중심, 수평적 연대.
- 영(Spirit)이 교회를 직접 지도하는 구조.

과도기적 마찰 (슈낙켄부르크, 브라운, 태거)

- 디오드레베는 아직 완전한 군주적 주교라기보다, 가정 교회 지도자에서 주교 제도로 넘어가는 '제도적 과도기'의 인물.
- 초기 카리스마적 리더십(장로)과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 통제력(디오드레베) 간의 구조적 마찰음이 요한3서의 핵심 배경.

후기 정착 (군주적 주교제)

- 단일 지도자가 지역 교회의 권위와 행정을 독점하는 수직적 구조.

종합 진단: 슈넬레(U. Schnelle)의 4차원적 복합 갈등 모델



Q1. 기독교론적 배경 (Christology)

- 유대계(장로): 육신으로 오심과 역사성 강조.
- 헬라계(디오드레베): 신성을 강조하며 육신이 되심을 폄하하는 문화적 차이.



Q2. 권력 구조 (Power & Leadership)

- 가르침과 지도력을 둘러싼 실질적인 주도권 쟁탈전 (누가 최종 권위자인가?).



Q3. 교회론 (Ecclesiology)

- 지역을 넘어서는 '보편적 네트워크 확장' vs 특정 가정/지역 중심의 '배타적 소수주의'.



Q4. 개인적 경쟁 (Personal Conflict)

- 초기 기독교에서 흔했던 두 '1인자(Alpha)' 간의 자존심 대결. 협력자에서 적대관계로 변질된 우정.

가장 짧은 서신이 남긴 거대한 유산

역사적 증거물

요한3서는 단순한 개인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가 유연한 '순회 선교 네트워크'에서 단일 지도자가 이끄는 '제도적 지역 교회'로 넘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생생하게 포착한 문서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

-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대할 것인가(가이오), 아니면 통제력을 위해 문을 닫을 것인가(디오드레베)?”
- 이 짧은 편지가 남긴 팽팽한 긴장감은 오늘날 교회의 구조와 환대의 방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